

자회사(로블루션) 소식

동원F&B와 손잡고 AI 휴머노이드 식품 선별 실증에 나선다



자회사 로블루션이 동원F&B와 함께 추진해 온 '비정형 식품 선별 공정 지능화를 위한 AI 휴머노이드 행동 모델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6년 휴머노이드로봇 실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원F&B가 주관기관, 로블루션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이번 실증의 핵심은 참치 원물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식품에서 미세 이물질을 골라내는 공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숙련 작업자의 눈과 손끝 감각에 의존해 왔던 이 작업을, 로블루션이 뉴로메카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나미(NAMI)'와 '에이르(EIR)'를 각 1대씩 투입해 데이터화하고 학습시킬 계획입니다. 동원F&B 창원공장에는 현장 실증용 로봇을, 로블루션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용 로봇을 배치해 현장 데이터 수집과 행동 모델 고도화를 함께 진행합니다.

목표 수치도 구체적입니다. 이물 탐지 정확도 95%, 선별 성공률 90%, 수작업 대비 생산성 25% 이상 향상을 지향하며, 로블루션은 AI 행동 모델 정확도 98% 이상과 로봇 전신 제어 응답속도 50ms 이하를 기술 목표로 잡았습니다. 윤경석 대표는 "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식품 제조 현장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행동 모델을 확보하고, 향후 검사·이송·포장 공정으로도 기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